

大學文化의 本質

申 午 鉉
(慶北大 哲學科)

I. 文化의 本質

大學文化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의 본질이 대학의 특수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문화의 기초논리를 간략하게 소묘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겠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뜻을 풀어보더라도 ‘문화(culture)’는 ‘자연(nature)’의 배양(culture), 계발(cultivation) 또는 개발(development)을 의미한다. 자연에는 물론 인간적 자연(human nature)과 비인간적 자연의 구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자연의 배양’이란 문화의 의미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포도재배(the culture of the vine)’, ‘세균배양(the culture of bacteria)’, ‘굴 양식(oyster culture)’ 등속의 자연배양과 ‘智育(intellectual culture)’, ‘德育(moral culture)’, ‘養心(the culture of mind)’과 같은 종류의 자연계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文化’라는 개념은 아마도 ‘人文化’ 또는 ‘人間化’라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인간의 자연을 자체 목적의 차원에서 인간화하든, 또는 비인간적 자연을 인간적 목적을 위하여 인간화하든간에 文化는 자연을 인간적인 의도에

따라 계발·개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문제는 자연을 또는 본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따라 순리대로 이 자연과 본성을 인간의 의도나 이상에 맞도록 계발·개발하는 일일 것이다. 즉 ‘文化’에는 ‘養育’이라는 의미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defining characteristics)로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일이다.

‘문화’가 지니는 ‘양육’의 의미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육’이라 하겠다. 교육은 마음·정신·지성·덕성·신체, 곧 人性의 계발이며 인성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의 자연을 뜻하는 것이겠다. 인간의 자연을 양육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다. 물론 교육은 파생적 의미로 인간의 자연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을 양육하는 방법의 계발을 뜻할 수도 있겠다. 지육·덕육·체육뿐만 아니라 제작·기술도 교육의 범주 속에 포함되겠기에 말이다. 결국 교육은 인간적 자연의 양육이거나 비인간적 자연의 양육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거나이다. 따라서 자연의 양육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문화는 궁극적으로 교육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기에 「中庸」은 만물의 본성을 자연으로(天命之謂性), 자연에의 順應을 道理로(率性之謂道) 그리고 이러한 도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자연을 양육하는 것을 敎育(修道之謂敎)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儒家는 자연 자체를 化生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의 化生을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贊助하는 것을 化育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의 化生을 복돋우어 주는 化育이야말로 文化의 정수라 하겠다. 古典的인 ‘교육’ 또는 ‘교양’ 개념이 ‘자연으로부터 이끌어 낸다(educare)’는 뜻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철학의 상식에 속하며 소크라테스의 產婆術의 개념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자연을 무시하거나 자연으로부터 由來하지 않는 활동은 결코 진정한 교육도 참된 문화도 될 수 없는 것이겠다. 살파는 스스로 아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잉태한 여인으로부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 여인이 분만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마침내 옥동자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는 자연을 양육하는 활동이며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化育될 수 있는 자연은 그 자체가 化生하지 않으면 안 된다. 古典的 유가 철학이나 그리스철학은 다같이 자연을 ‘化生’으로 파악하고 있다. ‘自然’, ‘天然’은 모두가 스스로 태어나고 자라나는 ‘化生’의 의미하며 그리이스어의 ‘Physis’나 라틴어의 ‘Natura’도 ‘化生’을 의미한다. 자연을 固着的인 事物로 파악할 때 자연의 化育이어야 할 문화도 사물의 가공 내지는 가공된 사물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 문화를 그 근원적인 활동으로부터 추상하여 단순한 창출된 문화產物로만 이해하는 것은 自然을 망각한 物化現象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이는 한 그루의 나무를 뿌리를 가진 생명체로 보지 않고 채목이나 과일로 평가하려는 것에 비유될 수 있겠다.

‘문화’라는 개념이 활동과 산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의 모든 下位개념에도 통용된다. 경험, 교양, 교육, 연구, 학문, 과학, 기술, 생산 등등은 모두가 인간의 행위과정과 동시에 그 산물을 함께 뜻한다.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종교문화(religious culture) 및 정신문화(spiritual culture) 등은 문화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대중문화(popular culture), 청년문화(youth culture) 및 대학문화(university culture) 등은 문화활동의 결과를 강조하는 개념들이다. 종교문화는 인간적 자연의

종교적 양육을 뜻하며 청년문화는 청년층이 창출해 낸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겠기에 말이다.

우리는 자주 정치, 사회, 경제와 나란히 문화를 거론하는 것을 목도한다. 정치·사회·경제가 자연을 人間化하려는 또는 인간적·비인간적 자연을 人間에 同化시키려는 合目的인 人間活動인 이상 마땅히 文化활동에 포함되어야겠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문화가 정치·경제·사회와 並列·對比되는 것일까? 자연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인간을 통상 ‘心理·物理 複合體(psychophysical complex)’로 부른다. 인간은 신체를 가진 정신 또는 정신적 신체이기에 인간의 자연은 정신을 신체화하는 동시에 신체를 정신화하는 방식으로 化生·化育한다. 物理的 자연을 同化하는 양식으로 物理的 자연에 순응하는 활동이 경제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행위는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욕망을 통제·조정하여 동일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하나의 통일적인 人格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마련이다. 다양한 의도를 통합하는 것이 사회적 행위요 하나의 인격에로의 종국적인 목표 달성행위가 정치적이며 이러한 통합과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형식·형성·정형·유형의 창출이 문화행위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다양한 의도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성취되는 논리를 다수인의 집합인 사회에 적용한다면 경제·사회·정치·문화의 의미가 일층 더 거시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인간을 정신적 존재라고 규정할 때 그것은 곧 인간의 사유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사유가 인간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것은 사유가 행동을 통하여 실현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유하며 행동하는 인간은 곧 정신의 신체화, 즉 자연의 정신화를 통하여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간은 역사의 진공 속에서 처음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며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존하는 언어를 통하여, 사유하고 행동하는 양식을 社會化를 통하여 모방·습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화창조는 현실적으로는 창조된 문화를 재창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즉 자연의 인간화를 위한 형성력 또는 형식을 문화적인 유산에서 빌려 쓰는 데 지나지 않는다. 여기

에 문화가 제도나 과거의 유산으로서의 문화산물과 동일시되는 소이가 발견된다. 그리하여 정치·사회·경제체계의 형성력이 되어야 할 문화체계가 거꾸로 정치·사회·경제체계에 의해서 통제·조정·변형·날조되기도 하는 것이다.

II. 大學의 文化

文化가 본질적으로 교육적이라면, 그리고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실현이 대학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문화의 본질적 양상은 대학문화에서 발견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문화의 본질을 거론한다는 것은 바로 문화의 본질을 거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이스 문화의 ‘특성’이라든가 대중문화의 ‘속성’이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형성된 문화산물의 성격을 문제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에 반하여 ‘대학문화’라고 하면 무엇인가 모르게 스스로 창출하는 문화의 현장’ 같은 어감이 들고 따라서 대학문화의 성격 규정에는 ‘속성’이나 ‘특성’보다는 ‘본성’이나 ‘본질’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도 같다. 이와 같이 ‘그리이스 문화의 본질’이라는 개념보다 ‘대학문화의 본질’이라는 개념이 일층 더 문화의 본질에 접근해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상식을 해부하고 숙고해 보려는 것이 이 논의가 표방하는 취지의 대강이다.

대학이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大學’은 쉽게 말해서 ‘小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儒家들의 전통에 의하면 大學과 小學은 서로 대비되는 교육이념을 지칭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大學」이라는 책과 「小學」이라는 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이 과연 ‘小人之學’에 대한 ‘大人之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小學」에 대한 「大學」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朱子學派와 陽明學派간의 싸움으로 돌리더라도 오늘날의 대학을 ‘大人之學’으로 해석해서 별 무리는 없을 성싶다. 여기서 ‘大人’이란 ‘成人’ 또는 ‘理性人’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도 현대사회적 통념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 ‘大學人’은 小人에 反하는 ‘君子’라는 뜻으로 ‘大人’을 뜻한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成人·理性人·知性人

을 의미할 수는 충분히 있겠기 때문이다.

英語의 ‘college’나 ‘university’도 이와 비슷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college’는 전문직업인의 共同體(community; society)를 뜻하고 大學의 教授들이야말로 전문직업인의 전형이며 이들이 ‘동료(colleague)’라고 부르는 것은 직업의식에 대한 높은 긍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大學生들도 전문직업인의 교육을 받는 예비 전문직업인의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다. ‘university’도 college의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더욱 다양한 전문직업인의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겠다. 따라서 college나 university를 구성하는 人員은 아무이의 없이 성인·지성인·이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自然인 바 理性과 知性이 開花期(age of reason)에 접어든 사람을 이성인 또는 지성인이라고 부른다. 지성인은 타인의 보호나 감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외부의 강제나 위협 또는 권유가 없이도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학을 ‘最高學府’라고 부르는 것도 대학이 지성인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성이나 이성의 계발이 대학에서 끝난다든가 대학사회의 入會자격이 이성의 完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람’을 ‘삶’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사람됨’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과정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成人’이라는 것이 ‘完成된 인간’을 뜻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갈 수 있는 계제에 도달한 사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기에 成人은 教化·化育·文化·人間化가 完成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 教化·文化·人間化의 계제에 이른 사람을 뜻하게 된다.

우리는 앞서 ‘문화’의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즉 자연의 배양도 문화이며 배양된 자연도 문화이다.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문화일 뿐만 아니라 가꾸어진 정원이나 그려진 그림도 문화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배양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문화이며 탐색된 방법의 체계도 문화이다.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도 문

화이며 이렇게 탐구된 방법체계도 문화인 것이다. 전자가 넓은 의미의 문화이고 후자가 좁은 의미의 문화이며, 또한 이 양자 안에서는 문화창조행위가 근원적인 의미의 문화이며 창조된 문화산물이 파생적인 의미의 문화라 하겠다. 그리고 문화의 산물이 또한 문화인 것은 그것이 다시 문화창조의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배우는 사람은 남이 그린 그림을 참조·모방함으로써 그림을 더 잘 그릴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실로 자연의 化生을 化育하는 모든 행위가 문화적인 행위이며 문화행위의 모든 산물도 문화이다. 예술과 문학이 문화임은 물론 종교·도덕·과학·기술도 문화이다. 인간의 동작이 의도적일 때 행위라 하거나와 인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문화적이고 교육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리라. 모든 문화적·교육적인 인간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역사적인 限에서 인간적·보편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행위는 필연적으로 체계적·조직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므로 인간 행위의 체계는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간에 바로 체계적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적이라고 하겠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바로 이러한 체계를 하나의 類型과 定型으로 탐색하는 활동인 동시에 이렇게 탐색된 유형과 典型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문화를 특히 典型的 文化 또는 文化的 典型이라 부를 수 있겠다.

다시 大學의 敎·學活動의 문제로 돌아가서 大學과 文化的 關係를 살펴보도록 하자. 大學은 이성인·자유인의 共同體라 하였다. 대학인은 오직 이성의 권위에 의해서 자연의 化生을 化育하는 데 연구와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후견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을 배양하며 그 원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대학인은 자유인임을 전제로 하고 또 이를 실증한다. 그러나 대학문화의 특성은 자연을 배양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배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곳에 대학문화의 정수가 발견된다. 즉 문화행위 자체에보다는 문화행위의 전형을 창출하는 곳에 대학문화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대학은 단순히 문화공동체에 그치지 않고 文化典型을

창출하는 文化的 産室이며 그 실험장이다.

문화가 자연의 질료를 형성하며 의미있는 문화체를 창출하는 형성력이며 형식이기도 하다면 이러한 형식의 형성력은 하나의 位階질서를 갖게 마련이다. 마치 수단과 목적이나 소재와 형식이 현실적으로는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어떤 단계에서 목적과 형식이던 것이 다른 단계에서는 수단과 소재로 격하될 수 있듯이 문화의 형식도 상황에 따라서는 문화의 소재로 격하될 수 있다. 예컨대 물감, 붓, 캔바스는 이미 문화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소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때 그림은 형식이고 화구들은 소재가 되나 이 그림 자체도 건물장식으로 사용된다든가 또는 회화이론을 위한 사례로 인용된다면 형식은 소재로 전락되고 만다. 이렇게 수단과 목적, 소재와 형식의 관계를 그 위계 질서에 따라 더듬어 간다면 마침내는 최종적인 목적이나 형식에 도달하게 될런지 모른다.

문화의 최종적 형식, 궁극적 전형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며 대학이 바로 이러한 창조의 현장이며 실험실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궁극적 형식과 최종적 전형은 어디에서부터 由來하는 것인가? 소재로서의 자연을 인간화할 문화의 전형은 결국 자연으로부터 유래할 수밖에 없다. 인간 자체가 하나의 자연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의 化生을 창조하며 化育한다는 것은 인간적 자연이 모든 자연의 典型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文化的 存在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또한 자연의 전형이기 때문에 자연을 文化化할 전형을 다름 아닌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여기에 소재로서의 자연과 궁극적 전형으로서의 자연 사이에 시원적인 순환성이 발견되며 이러한 순환성이 다름 아닌 자연의 化生 또는 化生하는 자연이기도 하다.

대학은 이러한 문화의 전형을 궁극적 자연으로부터 발견해 내는 문화창조의 최전선이며, 이렇게 발견된 문화의 전형이 기존하는 문화의 소재를 다시 形成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실험적으로 판정하는 최고법정이다. 그것이 종교이건 예술이건, 문학이건, 철학이건 또는 과학·기술이

공간에 인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즉 자연을 인간화하고 인간을 자연화하는 文化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문화형식이나 전형들은 결국 대학에서 창출되거나 적어도 대학에 의해서 실관을 받아야 하리라.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대학의 이러한 위치를 엄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文化가 발견된다. 인간은 인간화를 의미할 터이고 인간화는 곧 文化를 뜻할 것이기에 말이다. 정치·사회·경제체제는 그 자체가 이미 文化의 產物이며 이러한 체계적 행동, 즉 역사적·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행동은 근원적으로 문화적이다. 그러기에 정치문화, 사회문화, 경제문화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이지 아닌 행위는 또한 문화적일 수도 없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 문화는 언제나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플라톤(Platon)은 국가의 목적, 즉 통치의 근본목적이 교육이라 했거니와 그것은 다시 말해 국가의 목적이 文化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우리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문화와 정치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다. 문화는 소재의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정치인 인간교화라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문화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치는 어디까지나 문화의 管理 내지는 실현일 뿐이지 그 자체가 문화의 전형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정치적 문화 또는 정치의 문화판리가 지니는 명확한 한계성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의 문화에 대한 필연적인 종속성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궁극적 전형을 창출하는 대학의 문화는 정치의 장외에 속하며 어떠한 정치적 권력도 대학문화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 속에 포섭된 대학은 이미 문화창조의 산실이 아니며 진리 탐구의 최전선도, 진리 검증의 최고법정도 아니다. 대학의 자유와 자율이 신성불가침의 가치나 이상으로 애호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에 연유하는 것이다. 대학이 없으면 정치는 그 문화적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문화적이지 아닌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다.

Ⅲ. 大學文化와 大學生의 位置

대학은 자연의 궁극적 전형으로부터 자연태양의 형식을 최종적으로 탐색해 내는 문화창조의 최고 전당이다. 대학은 마치 '넓은 의미의 문화'를 가능케 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를 넓은 의미의 문화로 수용하는 특이한 문화체, 즉 전형적인 문화공동체 또는 문화전형의 공동체이다. 쉽게 말하면 실천을 위한 이론 탐구를 하나의 실천양식으로 실천하는, 또는 문화의 전형을 창출하는 행위를 문화행위 자체로 실천하는 활동무대가 대학사회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사회는 이상적·실험적·전형적인 특이한 사회이며, 이러한 특수성은 대학이 유별나게 또는 전형적으로 문화적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즉 대학사회는 정치·경제·사회체제보다 문화체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문화적인 문화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일반사회의 문화성이 대학사회를 모형으로 삼고 있으며 문화체제에 관한 한에서는 일반사회가 대학사회를 역지배하는 것은 反文化的이라 할 만하다.

대학사회의 구성원은 교수·학생·행정요원으로 분류된다. 연구·교육·행정이 대학의 三位一體이기는 하지만 대학사회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교수를 머리라 한다면 학생은 심장이요 행정원은 四肢에 비유될 수 있겠다. 특히 敎·學 관계는 대학교육의 핵심이라 하겠다. 대학에 있어서 교·학 관계는 수직적·종속적이기보다는 수평적·협동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대학인은 모두가 成人이요 지성인이며 자유인이다. 진리 탐구가, 또는 문화전형의 창출이 공동목표요 이성의 권위가 최종법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머리는 교수이지 학생은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대학의 주인은 교수가 아니라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위정자가 국민의 관리자이고 국사의 경영자이듯이 교수가 학생의 관리자이고 학사의 경영자인 것은 아니기에 말이다. 바로 여기에 일반사회와 대학사회의 근본적인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대학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은 문화전형의 창출

을 문화활동 자체로 삼고 있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전형의 창출은 주로 대학의 永住者인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잠정적인 거주자인 학생은 부차적 역할을 감당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학생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전형문화체계 안에 수용되어 이를 습득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방식으로 대학문화를 풍요롭고 현실적이게 만든다. 물론 학생이 없는 대학을 생각할 수 없겠으나 학생이 없어도 여전히 대학은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지성인의 공동체로서 문화전형 창출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대학에 교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자. 학생만으로 구성된 대학은 대학문화의 본질인 문화전형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게 된다. 여기에 학생의 권리와 자치활동의 분명한 한계가 그어져 있다. 대학이 일반 정치의 장외에 속한다면 그것은 또한 학생정치의 장외에 속한다는 것은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겠다.

대학생의 문화는 대학생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그 본질적 성격이 규정된다. 대학생은 일반사회와 대학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이며 매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일반사회의 문화를 대학문화 안으로 끌어들이는 뿐만 아니라 대학문화를 일반사회에 전달·보급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학생이다. 대학생은 대학사회의 일원이기 전에 가정·사회·학교에서 일

반문화를 습득했고, 대학문화의 실험실을 드나드는 짧은 기간중에도 부단히 일반문화와 대학문화에 함께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나머지 생애를 일반문화권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이다. 교수들이 문화전형의 창출을 전문직업으로 선택함으로써 대학문화의 영주자임을 자처한다면 대학생들은 교수들의 영주지에 잠시 체류하는 過客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이 대학문화의 향유자요 대학문화 창출의 협력자 내지는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 보급자에 적합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만간에 현실사회로 돌아가야 할 대학생은 대학사회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사회현실에 민감하다. 뿐만 아니라 문화전형을 창출하는 대학문화의 동참자들이기에 현실문화 또는 문화현실을 문화의 전형 또는 전형적인 문화를 척도로 하여 이해·평가·비판·수정·변혁하려는 의지·동기·욕구·용기를 가지기 쉽다. 역으로 현실의 문제를 대학 속으로 옮겨와서 대학문화의 가치를 현실문제의 해결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비판·개혁하려는 시도를 감행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대학생은 대학문화의 원동력이며 민중문화의 창조력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으로는 사회의 문화적 변용에 기여하고 사회의 일반적 변화에 역동적인 추진력을 제공한다 할 수 있겠다. *